Chip : Project E.B

하늘시민

**#1. 청계천 하수구 아침**

청계천 하수구에서 경찰과 형사들, 응급차와 시신을 조사하고 접근 대책없이 몰려드는 사진기자들을 저지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아침부터 정신이 없고 건너편에는 적십자 차가 한대 보인다

기자와 경찰을 뚫고 용하가 시신 쪽에 가까이 가 앉아 이리저리 보더니 시신의 근처에

침을 뱉으며

**용하**

“칵!퉷!! 재수도 드럽게 없는 새끼님 이구만...하...냄새...

죽여도 꼭 이렇게 익싸이팅 하게 죽여요 꼭...야, 이거 핸드폰 증거 자료로 남겨

그리고...--"

**예성**

*(목소리)*

“--선배!! 잡았어!! 잡았어!!”

**#2. 종로경찰서 취조실 오후**

취조실에서 용하가 범인을 심문을 한다.

**용하**

“칵!퉷!! 야.. 왜 그랬--

**범인**

“--제...제가 아...아..안그랬어요!!! 혀..혀혀혀..형사님 정말 저..전..

아..아니에요....으흐흑....."

**용하**

*(차분하게)*

"하...괜찬아... 침착하게 말해봐..여기 물도 좀 마--"

**범인**

"--으허허허허허허헝~ 혀..형사님 전 정말 안..--"

**용하**

*(범인에게 물통을 던지며)*

"--하...그러니깐~...이 물을!! 이 시원한 생수를!! 미네랄워터를!!

 마! 시! 라! 고!"

**#3. 국밥집 저녁**

한적한 식당 구석에서 용하는 급하게, 예성은 차분히 식사를 한다

 **예성**

"선배 그 범인... 불던가요?"

**용하**

"...그 새끼.. 끝--"

**예성**

"--그쵸? 안불죠?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용하**

"야...밥이나 먹--"

**예성**

"--이중인격! 맞다맞다! 이중인격이다!! 그쵸? 맞아맞아!!"

용하가 예성의 국밥을 뺏어와 마저 먹는다

**#4. 길거리 밤**

식사 후 집으로 가는 길, 근처에는 적십자 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고 골목을 지날 때

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용하와 예성이 골목을 들어가자,

 **여성**

"제발 살려주세요...이...있는 돈 다...드릴께요..."

예성이 남자에게 뛰어가 저지를 하며

**예성**

"이봐요!! 이게 뭐 하는 짓 입니까!?"

남자는 예성을 뿌리치고 여자를 때린다. 퍽!!

 **여자**

*(넘어지며)*

"꺅!!"

예성이 남자의 어깨를 꺽으며

 **예성**

"이봐!! 뭐 하는 짓이야!!"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저항 하기 시작하자

 **예성**

"팔 부러지고 싶어!? 이렇게 꺽이면 팔 부러--"

용하가 남자를 발로 차자 팔이 부러지고 나가 떨어지면서 핸드폰이 떨어진다.

 **용하**

"퉷!! 야, 사내새끼들 끼리 뭐하는... 자리 비켜주랴? 하...새끼..."

용하가 여자 쪽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용하**

"이봐요, 괜찬...? 야, 구급차 불러."

구급차를 부르고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남자가 일어나 예성을 때리고

도망가자

 **예성**

*(쓰러지며)*

 *"으악!!"*

**#5. 종로경찰서 화장실 아침**

예성이 어제 맞은 상처에 연고와 밴드를 붙이며

 **예성**

"아!... 아파라...뭐를 먹었길래...아... 스쳤는데도 상처가...무식한건

 용하선배랑 동급인데..."

용하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팔 부러진 시늉을 하며

 **용하**

 "퉷! 어이~약골~아이쿠...내 팔 봐라~그 새끼 좀 조사 해봐봐

 난 어제 아줌마 만나고 올께."

**#6. 종로병원 환자실 아침**

6인용 병실 창문쪽에 그 여자가 누워있는걸 보고 다가가 인사하는 용하

 **용하**

"몸은 좀 어때요? 어제 일 때문에 뭐 좀 물어보러 왔수다."

여자자 용하를 빤히 쳐다보자 용하는 헛기침을 하며 옷깃을 매만지자

 **여자**

"누구...세요...? 혹시...저 아시나요...?"

한숨과 침대 옆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용하**

 "어제 밤 어떤 남자한테 두들겨 맞았죠?"

 **여자**

*(놀라며)*

"어머!! 어머!! 죄송해요! 어제 도와주신 분이시구나! 아~정말 감사합니다!"

**용하**

"됐고, 어제 일이나 말 해봐요."

 **여자**

"아...어제 퇴근..."

핸드폰이 울리자

**여자**

"아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핸드폰으로 오른손을 비추고 화면을 확인하자 용하가 힐끔 보며

 **용하**

 "...손 사진 찍는 취미 있나?"

웃긴 듯이 용하 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여자**

"아저씨는 이거 모르세요? 요새 완소 아이템인데?"

핸드폰 화면에는 여자의 신체정보와 건강지수, 컨디션 등이 나와있고 그것을 보고

 **용하**

 "75...?--"

 **소정**

*(핸드폰을 감추고 당황하며)*

"--뭐 물어 보신다 하셨죠? 이름이요? 소정이에요 박소정!"

**#7. 경찰서가는길 차 안 오후**

경찰서로 가면서 소정의 말을 생각 하는 용하

 **소정**

'힘이 어찌나 센지 살짝 밀었는데 나가 떨어 지드라구요.'

 **용하**

"힘 센 놈이 세상에 한둘인가...참 내..."

전화벨이 울리고

 **용하**

"여보세요...뭐!?"

**#8. 종로경찰서 유치장 오후**

유치장 안에는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스스로 목을 졸라 죽어 있고 같이 갇혀있던

남자는 겁에 질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서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있고 용하가

오자 철민 계장이 용하를 부르며

 **철민**

"야 서용하, 너 어디 갔다 온거야!? 또 어디서 팽팽 놀다 왔어? 엉!?"

철민의 말은 무시하고 시신 옆으로 다가가 빤히 쳐다보고 자리를 뜨는 용하

 **철민**

"야! 너 또 어디가!?"

**#9. 종로경찰서 물품보관실 오후**

물품보관실 담당자에게 다가가 시체와 범인과 도주한 남자의 물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자**

"핸드폰이요...?"

**용하**

"줘봐, 빨리"

3명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하고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발견하자 소정의 말을 생각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소정**

'EB eye 라는 어플 인데 이걸로 손을 스캔 하면...'

**#10. 종로경찰서 형사계 밤**

용하는 EB칩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어떤 블로거의 올라와 있는 광고 영상을 보고

핸드폰의 EB eye 어플을 보면서

 **광고**

*(개인정보 유출차단 100%!! 현금, 카드 분실 제로!! 전용어플 연동으로*

 *내몸의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습니다!!*

 *E.B칩이 여러분을 좀 더 스마트하고 쿨~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EB eye.com으로...)*

 **용하**

"지랄..."

용하에게 전화가 오고

 **철민**

"용하야 내일 서울역 지원 나 대신 좀 가주라 내일 간부 모임 때문에 못--"

 **용하**

"--알앗어요...하.."

**#11. 서울역 저녁 밤**

용하는 지원 업무를 끝마치고 역 쪽으로 힘없이 걸어가다가 구석에 적십자 차에서

직원들이 노숙자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고 근처로 가다가 이야기 소리를 듣는다.

 **적십자직원**

*(노숙자의 손을 잡으며)*

"선생님...많이 힘드시죠...? 선생님 드시라고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많이

드시고 힘내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지요..."

노숙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노숙자**

"나 같은 놈에게 이런 것을...매번 고맙네..."

적십자 직원이 음식을 직접 먹여 주고 노숙자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 하고

 **적십자직원**

"선생님 그리고 오늘은 더 좋은거 드리려고 왔어요"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며

 **적십자직원**

"EB칩 이라는건데요 쉽게 말씀 드리면 건강 칩이에요 이거 맞고 핸드폰으로

선생님 건강도 확인 하실수 있구요...지갑도 필요없이 이 안에 다 넣어 드려요

물론 핸드폰도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실 때까지 쓰실 현금도 넣어 드리는데

어떠세요? 한번 써보세요 요즘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물론 공짜이구요."

 **노숙자**

*(떨면서)*

"해..핸드폰..? 도...도..돈 까지...? 얼마나 주는 건가요...?"

적십자 직원이 주위를 살피고는 노숙자의 귀에다 속삭이자 노숙자가 굉장히 굉장히

놀라며

 **노숙자**

"바..받겠네...!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적십자직원**

"오른손만 내밀어 주시면 되요 30초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주위 노숙자들도 다같이 음식과 칩을 받기 시작하고 용하도 근처를 서성이다

멀치감치 쭈그려 앉아있는 노숙자를 보고 그쪽 으로 걸어가서 옆에 주저 앉아 노숙자

에게 말을 건넨다

 **용하**

"...아저씨는 밥 안받아요? 뭐 좋은거 준다고 하던데."

 **아저씨**

"..."

 **용하**

"뭐 칩 넣어서 건강체크 하는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저거 하--"

 **아저씨**

"--자네 혹시..마피아 게임이라고 알고있나..?"

 **용하**

 *(당황하며)*

"여기서...하자구요?"

 **아저씨**

"저건 사실 위험--"

 **적십자직원**

"--선생님?"

 **아저씨**

*(고개를 푹 숙이고)*

"난... 받지 않겠네..."

적십자 직원이 잠시 아저씨를 응시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용하도 일어서서

 **용하**

 "전 그럼 마피아 게임 하러 갑니다."

가버리는 용하 뒤로 아저씨가 용하에게 소리치며

 **아저씨**

 "밤에 마피아 에게 죽을 시민을 의사는 살릴 수 있다네!!"

**#12. 용하의 방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혼자 중얼 거리며

**용하**

"하... 그 아저씨는 뭔 이상한 말을 해서 뭔 마피아야 마피아는..."

**#13. 서울역 아침**

주사를 맞지 않은 아저씨는 심하게 구타를 당한 채 죽어 있고 용하는 그 앞에 멍하니

서있다 예성 에게 흥분한 채 전화를 하는 용하 뒤로 적십자 차가 지나간다.

 **용하**

"어제 서울역에 온 적십자 새끼를 누군지 알아내는 즉시 위치 찍어서 보내!!"

 **예성**

"네? 적십자는..--"

전화를 끊고 소정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한다

 **용하**

"어디야? 당장 만나."

**#14. 영등포역 카페 오후**

용하는 먼저 와 소정을 기다리고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다 소정이 오지 않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소정이 들어와 앞에 앉아 약간 불만인 표정으로 용하를 바라본다.

 **소정**

"뭐에요? 사람 이렇게 막 불러도 되는--"

 **용하**

"--그 칩 정체가 뭐야."